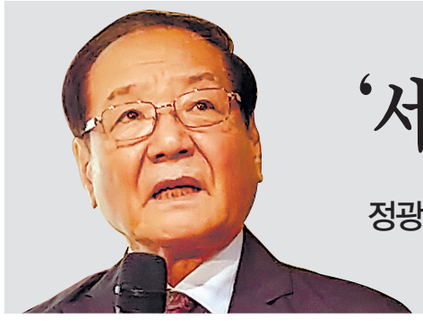


‘세종 단독 창제’ 신화에 의문 던지다

정광 교수, 19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훈민정음과 신미대사’ 강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인에게 한글은 공기와 같다.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자신의 의사를 글로 전달하거나 말로 이야기한다. 세계에 유례없고 독창적 문자 한글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와 함께 이를 창제한 세종대왕을 ‘희대의 성군’으로 칭송한다.

이 같은 한글이 어떻게 제정됐고, 배경이론은 무엇이며, 주변문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이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다.

9월 19일 ‘한글 창제와 신미 대사’를 주제로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정광 교수는 이런 합리적 의심과 의문을 청중들에게 먼저 제기했다.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유례가 없는 문자를 독창적으로 만드셨다’는 프레임에서 학자나 대중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정광 교수는 “세종대왕의 독창적 창제라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말·글의 연구에서 이 주장이 특별히 강조됐기 때문”이라며 “제왕인 세종이 혼자서 백성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는 신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훈민정음은 인도의 비가라론 성명기

세종·가족·학승 창제의 주역

서역의 역경승들 만들어 낸

‘反切’과 높은 관계성 ‘증거’

파스파 문자·梵字 영향 많아

비가라론에 정통한 신미대사

중성 11자 추가·언해에 일조

론과 중국의 성운학, 파스파 문자, 범어 등을 깊이 연구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는 세종과 세종의 친족, 학승 등의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정광 교수의 주장이다. 정광 교수에 따르면 한자를 표음하기 위한 파스파 문자 등 주변 문자와의 관계성은 이미 선학(先學)들이 조명해 왔던 일이다.

유희는 ‘언문지’(1824, 〈문통〉제19권)의 ‘전자례’에서 “언문은 비록 몽고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졌지만 실제로 세간에 지극히 오묘한 것이다”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훈민정음의 몽고문자 기원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광 교수는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 파스파 문자는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한자음의 표음문자였다. 역관들의 과거인 역과에서는 파스파 문자를 시험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당대(唐代) 장안의 서북방언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 한자음이 원대(元代) 이후 재편된 북경의 동북방언으로 발음되는 한자음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면서부터다. “세종은 같은 한자의 발음이 우리 발음과 중국의 발음이 서로 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고심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반절(反切)’이다. ‘반절’은 서역 역경승들이 불경 한역(漢譯)하기 위한 한자를 학습할 때 한자의 발음을 표음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자(梵字)를 반자(半字)로 나눠 배운 것처럼 한자도 발음을 첫 자음의 반절상자(反切上字)와 나머지 반절하자(反切下字)로 2자로 표음해 배우도록 했다.

정광 교수는 “훈민정음으로 불리는 언문은 ‘반절’로 인식했다”면서 “한글의 ‘ㄱ’·‘ㄴ’을 처음 보여준 〈훈몽자회〉 ‘언문자모’에서는 ‘반절27자’라고 했다. 언문을 반절로 본 것이다. 훈민정음은 새로운 동국정운식 한자 표음 기호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광 교수는 신미 대사가 새로운 문자의 제정에 가담한 것은 초기 반절상자를 언문 27자로 만든 이후라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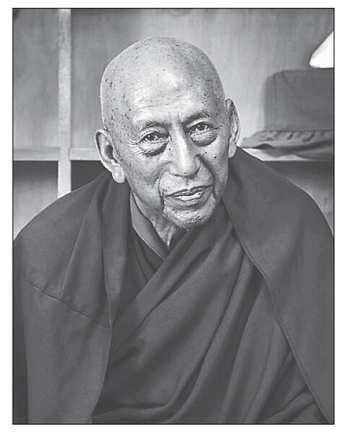
정광 교수는 “범자와 고대인도에서 발달한 비가라론의 성명기론을 전공한 신미 대사가 창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범자의 모음자인 마다(摩多)에 이끌려 중성자 11자를 추가했다”면서 “이로부터 초성, 중성, 종성이 구비돼 이 문자로 우리말도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미대사를 세종에게 추천한 것은 효령대군”이라며 “김수온의 〈식우집〉에 따르면 속리산 복천사에 주석하며 범자와 성명기론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한 신미를 세종이 수양대군을 보내어 불러올렸고, 효령대군의 집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신미와 학승들은 언해 작업에서도 활약했다. 정광 교수는 “세종은 신미의 새 문자에 대한 지식을 인정해 수양대군, 김수온과 더불어 〈증수석가보〉를 언해하고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한다. 한자음만 아니라 우리말도 기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세종 자신도 〈월인천강지곡〉을 저술하며 이를 확인했다”며 “이를 합편한 〈월인석보〉의 제1권 권두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붙여 간행해 우리말을 표기하는 새로운 문자를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베트 삼동린포체, 경주 부산서 전법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황룡원과 MBC드림홀서 법회



티베트 현자이자 대선지식 삼동린포체(81·사진)가 10월 한국을 방문한다.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원장 박은정, 이하 나란다불교학술원)은 삼동린포체를 초청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주와 부산에서 ‘대승전법륜대회(大乘轉法輪大會)’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법사로 초정받은 삼동린포체는 1939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5세 때 4대 삼동 린포체 후신으로 인정받아 7세에 출가했다. 12세 때부터 라싸의 대풍사원에서 경론을 배웠으며 1959년 중국의 침공으로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다.

삼동 린포체는 망명 후 40년 이상 때로는 교육자로 때로는 망명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가적 운명 앞에 대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삼동 린포체는 특히 인도 전역과 해외에서 교육, 문화, 사회, 복지, 행정 분야에

티베트정부 국무총리 역임

티베트불교 경론에 통달해

5일간 경주 황룡원서 설법

부산선 죽음 주제로 강연

선견지명을 갖고 수십년에 걸쳐 이로운 업적을 남기면서도 비구로서 끊임없이 배움과 수행에 매진하여 현교와 밀교에 통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간 불모지에서 티베트대학을 운영했던 삼동 린포체는 수많은 인도 학자, 수행자와 교류했다. 삼동 린포체가 20세기 가장 훌륭한 철학가이자 정신적 스승으로 평가받는 명상가이자 인도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와 수년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탐구한 일화는 유명하다.

삼동 린포체는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모든 교학에 정통해 오랫동안 인도 철학협회장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의 이사 등 중책을 맡아왔다.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면서도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청정 비구로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삼동 린포체는 경주 황룡원에서 법화경 설법에 집중한다.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설법의 장은 사실 티벳 불교에서는 이례적이다. 논장에 대한 법문이 주를 이루는 티벳 전통에서 경(經)을 주제로 설법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다.

이는 대승불교의 법화경 신행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에 대한 삼동 린포체의 큰 관심 때문이다. 삼동 린포체는 나란다 법통에서 전해진 티벳 법화경을 한국 불자들에게 하나씩 풀어낼 것이다.

경주 황룡원에서 열리는 설법은 오전 오후로 두 차례 진행되며 설법 후에는 게쉬 스님들이 진행하는 수행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또 저녁공양 뒤에는 법화경 사경과 독경, 새벽에는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삼동 린포체는 황룡원 설법에 이어 부산 MBC드림홀에서 부산 무량선원(주지 취산)의 주최로 10월 19일과 20일 열리는 대중강연에도 나선다.

양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중강연은 죽음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날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둘째날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오전 강연과 함께 오후에는 대중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강연은 죽음에 대한 티벳의 풍부한 이해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나란다불교학술원장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대선지식으로부터 법을 들을 기회는 좀처럼 어려운 것”이라며 “노구를 이끌고 인연있는 제자들을 위해 법을 설하러 오시는 대선지식과의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승전법륜대회 참가를 원하는 이는 사전 접수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nalandakorea@gmail.com)이나 전화(경주법회 054-624-5353, 010-2649-2966/부산강연 051-503-1107, 010-6272-1655)로 문의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제1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등 4개 부문으로 대상은 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은 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추천받는다.

생명상과 나눔상은 각각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활성화와 봉사·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4일이며, 시상은 오는 11월 10일 예정된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봉은사, 신도멤버십 확대 화제

인근 영화관과 협약, 최대 49% 할인 전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청년 신도 확대를 위한 신도멤버십 확대에 나섰다. 그 첫 걸음은 메가박스 영화 할인이다.

봉은사는 최근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올해 12월 31일까지 봉은사 신도증을 제시하면 최대 49%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증 이벤트는 크게 혜택이 2가지다. 첫 번째 혜택은 본인과 동반1인 등 최대 2명까지 일반관을 6000원, 컴포트관을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비할인 정가는 11000원 가량이다.

두 번째 혜택은 코엑스점 전용 영화관람권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봉은사 A세트로 명명된 이번 세트는 코엑스점 전용 영화관람권 5매에 영화초대권 1매 등 총 6매를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봉은사 B세트는 코엑스점 전용 영화관람권 2매에 러브콤보 교환권 1매를 합하여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봉은사 측은 청년세대들의 신도 유입과 사내 대중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종학硏, 행복명상 토크콘서트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0월 5일 오후 1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청년, 내 마음을 만나다’를 주제로 행복명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명사 강연·행복명상·청년멘토와의 대화 등으로 꾸며진다.

1부 명사 특강에는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이 ‘청년의 자아 찾기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이 행복명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02)6713-5141

신성민 기자

